

# 지난해 생산·수출액 10% 이상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 구조조정 시급

## 여수국가산단 조성 50년 고성능 첨단소재 등 20개 사업 2025년까지 3500억원 투입 '100년 산단' 혁신 역량 높이기

전남의 주축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거점인 여수 국가산단의 미래경쟁력은 곧 지역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따라서 현재 노후시설 개선, 고부가가치 연계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사건·사고 대책 수립 및 환경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생산액과 수출액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여수국가산단으로 발돋움=여수국가산단이라는 명칭은 2001년 10월 건설교통부고시로 정해졌다. 1967년 기공 당시 여천공업단지에서, 국가의 주축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나포부두, 중흥부두, 원유부두 등 18개의 부두와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도로, 85만kW의 전력공급능력, 하루 54만t의 공업용수 공급능력 등으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가진 덕분에 정유, 석유화학, 비료 등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공장을 지으면서 산단으로 급성장했다. 지난 2015년 말 현재 277개 업체가 입주해 244개 업체가 가능중이며, 고용인원은 2만 735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기업 120곳의 지난 2016년 생산액은 60조 476억원, 수출은 258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생산액 69조 3890억원(수출 300억 달러)보다 13.5% 감소하고 수출은 16.7%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산단 기업의 전체 생산과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 호재의 주원인으로는 저유가에 따른 정제마진폭 확대와 에틸렌 등 수급 개선 및 해외 경쟁업체의 설비증설 지연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미래경쟁력 확보해야 100년 내다봐=여수산

단은 지난 2014년 혁신산단 지정 등으로 노후화된 산단의 혁신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혁신산단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생산·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복지·편의시설 등이 통합 입주하는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혁신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0개 사업에 35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 정주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10년동안 20여개의 다양한 신사업 개발과 향후 5년간 고용인원 2만명, 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여수국가산단내 녹지해제 부지 총 661만6000㎡ 중 대부분을 공공용지로 전환하고 별도로 34만3000㎡를 대체녹지로 조성해 산단 주요기업들의 2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LG화학 등 산단 주요기업들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은 탄소나노유기(CNT)와 고품성수지(SAP) 등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PVC 등 범용제품의 비중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한국산단공 여수지사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첨단화학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과 함께 크는 산단으로 거듭나야=여수시와 전남도 등 관련 기관과 산단 기업들은 산단 내 종합 방재센터 운영과 연방방재시스템 구축,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배출 저감시설과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TMS)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설비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 LG화학 등 주요 기업들이 모인 여수석유화학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신속한 정보교환과 대응책 마련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50년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산단단지 내 대규모 입주기업의 자동화시설로 종업원 수가 감소중인 반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따른 지방재정 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미래경쟁력 확보해야 100년 내다봐=여수산

# 文대통령 초강수에 野 국회 보이콧 시사

## 강경화 18일 임명 강행 예고... '강대강' 청문정국 긴장 최고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튀어 노는 공방전을 벌이는 등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명 강행 의사를 피력하자 야권은 “오만과 독선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맞받으며 국회 일정 거부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제출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발언”을 하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

## 한국당 “野 3당에 대한 선전포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강력 반발

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며 “(청문회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입장은 야 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며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더욱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

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강경한 수단’은 국회 일정 거부와 장외투쟁 등이 될 것이라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당도 16일 비상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우경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은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상황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의당은 내일 예정된 광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내일 오전 9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회는 참고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국회가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수석의 하부기구가 됐다 참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5공동선언 광주 기념행사 15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광주지역 기념행사'가 열렸다. 윤장현 시장, 이은방 시장의 의장,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나눔기자 mja@

## 목마른 대지 빗물 튀기는 소리가 간절하다



(187) 가뭄

가뭄이다. 대지가 바삭바삭한 정도로 말라 버려 기우제라도 지나야 할 만큼 극심한 가뭄이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잠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툭툭 마른 대지만 건드릴 뿐 해갈에는 아득한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아이 젖 빠는 소리와 가뭄 난 눈에 물들어가는 소리”라는 옛말을 떠올리면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요소들이다.

서양화가 서시환(1964~)의 작품 '빗물 튀튀'

튀(2001년 작)는 목말라하는 요즈음 우리 농촌의 밭과 들, 대지 위로 떨어지길 고대하는 빗방울을 묘사한 듯하다. 비가 와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도시와 달리 농촌의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물이라 튀튀 튀 튀 하고 내는 소리인 듯 경쾌하기만 하다. 빗줄기가 일으키는 풀풀 흙 보리가 빗물에 가라앉고 화면 속 가득한 흙 내음이 코끝까지 전해진다. 농부의 속 타는 마음을 달래주는 그림 같기도 하다.

얼마 전 양림미술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모자전 '옛 적 길, 곧 선한 길 전'을 갖기도 했던 화가는 해남 출신으로 중2 때 이농한 부모를 따라 광주로 왔다가 추계예대를 나왔다. '대지의 작가'라 불릴 만큼 다채로운 대지의 모습을 그려오고 있는 화가는 청년시절에는 형식적 실험을 패기 있게 시도하기도 했지만, '산'이라는 잡지에 시인과 함께 그림을 연재하게 되면서 우리 산과 자연을 재발견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떠나는 고향을



서시환 작 '빗물 튀튀튀'

다시 찾는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화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자연에 시선을 두면서도 산과 인간의 삶이 접하는 지점에 주목한 다거나 대지의 다양한 풍경 안에 햇살 빗물 바람 꽃들을 개입시켜 생명의 송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대지의 목마른 갈증에 빗물이 튀기는 소리가 간절함을 작품에 담았다”는 화가의 기원처럼 세찬 빗소리를 기다려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여수국가산업단지 야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박+항공**  
3일 특큐슈 298,000원 부터  
4일 특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 (TAX포함) 부터**

###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

###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

###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전 기종. 여행지보험 가입(여행비용 : 1만원, 국내항공 5만원/인), 관광진흥법(기종,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기입 ◆ 예약시 계약서(세칙)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호텔, 식사, 가이드) 별도, 선결제,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